



로봇/기계/운송 양승운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09/02~2024/09/08]

2024.09.09

[로봇] 자동화 수요 반등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 IFA에서 CES 공개했던 삼성전자 볼리 선보여. 이번엔 중국도 카피
- 미국 로봇 주문 전년비 8% 감소. 자동차/반도체 부진, 비자동차 폭풍 성장

[방산] 폴란드 MSPO 후기, 계약은 없었어도 긍정적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00억 이상 계약 공시. 탄/장갑차/인도 K-9 등 서프라이즈 가능성
- 폴란드 MSPO 마무리. 계약은 없었지만 다수 MOU 체결
- 연내 예정된 국내 함경 사업(KDDX, 호위함) 위기. 한편, 미 함경 MRO는 개시
- 유럽 내년도 예산안 공개 잇달아. 폴란드 국방비 65조원(24년 47조원)으로 증액

[항공] 8월 항공 데이터 발표.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과거 최고치 99% 도달

- 흔들리는 일본 노선 수요에도 항공사들의 취항지 확대 계속
-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올해 배분 받은 운수권으로 10월 밸리 취항
- 에어버스 주력 기종 A350에서도 결함 발견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우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로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등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임의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등 자료는 당시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배포·전송·변형·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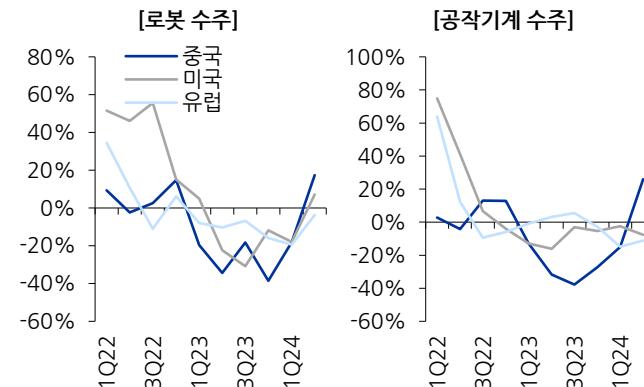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4)

[자동화 수요 반등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 조금씩 반등하는 자동화 장비(로봇, 공작기계) 업황. 어느 지역에서 먼저 수요 회복이 나타나는지 시장 관심 확대 중. 로봇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수요가 강한 지역은 없으나, 고객사 재고 레벨 정상화되면서 중국 > 미국 > 유럽 순으로 수요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최근 발표된 미국 상반기 로봇 주문 현황에서는 자동차 수요가 매우 부진. EV 투자 딜레이된 영향이 크게 작용. 자동차에서는 EV 대신 하이브리드/내연차 투자 올라오면서 회복 전망. 지금은 오히려 식품 등 비(非) 자동차 부문이 강세. 공작기계는 마찬가지로 중국 수요가 강세. 다만, 7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영향으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대다수. 중국은 EV/IT, 미주는 항공기 관련 수요가 견조한 모습

Key Chart: 지역별 로봇 및 공작기계 수주 추이



자료: JMTBA, Fanuc, Yaskawa

Weekly Keyword

“자동화 수요 반등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자동화 장비 업황 반등 기록 중. 어느 지역에서 먼저 회복세를 보이는가 시장 관심 확대. 로봇은 중국 - 미국 - 유럽 순 회복 전망. 공작기계는 중국 강세 보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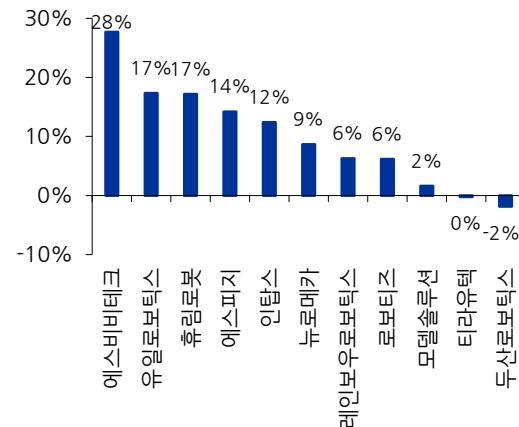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9/02~09/08)

[산업용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IMTS 참여. 미국 협동로봇 시장 공략
- [서비스 로봇]

- 삼성전자, IFA에서 가정용 로봇 볼리 또 공개
- 호반건설, 베어로보틱스와 실내로봇 서비스 개발 MOU
- 물류로봇 기업 제닉스 9월 말 코스닥 상장 예정
- KCC, AMR 활용한 수평면 도장 로봇 개발
- 한국 정부, 26년까지 협업 가능한 의료로봇 개발 추진

[기타(정책/부품/SW)]

- 레인보우로보틱스, 천문연과 광학감시시스템 계약
- 급식 로봇 스타트업, 한국로보틱스 시리즈 A 유치 추진
- 중국 산업용 로봇 수입액 전년비 37% 증가

[Global]

- 중국 하이센스도 가정용 로봇 공개. 내년 출시 예정
- 미국 항만노동자협회가 무인화 장비 도입 반발
- 오리온스타, MFC 전용 물류로봇 캐리봇 출시
- 중국 상무부, 로봇 산업 투자 촉진 위원회 발족
- 중국 스피리트 AI, 다중 작업 범용 휴머노이드 공개
- 중국 ZTO, 무인 배달 로봇 주행 100만km 달성
- 아마존, AI 로봇 기업 코베리언트 창업자 고용
- 샤프, 도호구대학과 1000대 로봇 동시제어 엔진 개발
- 일본 이온, 세번째 오카도 로봇 창고 구축 돌입
- 북미 상반기 로봇 매출 전년비 8% 감소 기록
- 7월 로봇 분야 투자 1.3B USD 기록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

[폴란드 MSPO 후기, 계약은 없었어도 긍정적]

■ 9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개최된 폴란드 최대 방산전시회 MSPO에는 총 769개 업체가 참여하며 성황리에 개최. 전시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액수는 20억 즈워티(6,900억원) 수준. 시장에서 기대했던 현대로템의 K-2 전차 계약은 불발된 점은 아쉽지만, 하지만 여전히 연내 체결 가능성 높음.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WB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한화오션 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협력, 그리고 현대로템과 Obrum(PGZ 산하) 간에 교량전차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며 폴란드와 추가적인 미래 사업을 그린 점. 폴란드는 내년 국방비 예산을 65조원으로 책정하며 GDP 대비 4.7%로 늘림. 향후 장갑차를 비롯 다수 사업 출하 가능성. 기타 현대위아가 105mm 곡사포, 기아 KMTV/KLTV, 한화시스템 SAR위성/잠수함 전투체계, 한국항공우주 개량형 FA50/KF-21/LAH 등을 전시.

Key Chart: MSPO 각종 MOU 체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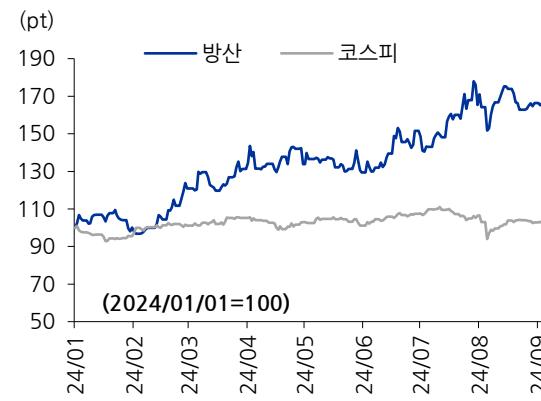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Weekly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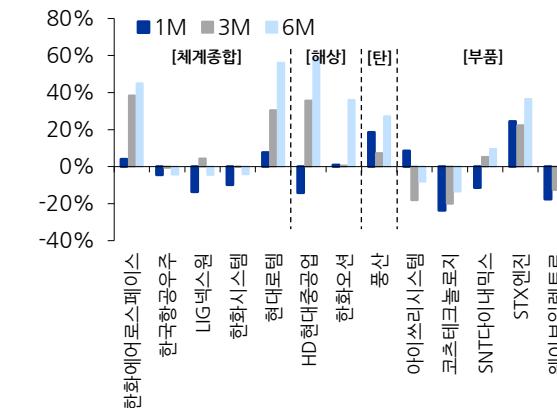
“폴란드 MSPO 후기, 계약은 없었어도 긍정적”

폴란드 MSPO에서 기대했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은 없었지만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등 다수 MOU 체결되면서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방산 주요 뉴스(09/02~09/08)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2,300억원 이상 공급 계약 체결 공시
- 한화에어로, 폴란드 업체와 천무 유도탄 현지생산 MOU
- 한화에어로, 태국과 장갑차 개조 MOU 체결
- KAI, 이집트 에어쇼 참여. 아프리카/중동 마케팅 강화
- 방사청장, 폴란드 국방차관에 K2 2차 이행계약 체결 촉구
- LIG넥스원, 군 무인수상정 이달말 최종 계약 예정
- 현대로템, 폴란드 군 교량전차 현지업체와 공동개발 MOU
- KDDX 출구 전략으로 공동개발, 1/2번함 동시건조 검토
- 울산급 호위함 함정 연이어 유찰. 계약금 낮은 것이 문제
- 미국 해군 함정 한화오션 조선소 입항. 국내 첫 정비 개시
- 한화오션, 폴란드 WB 그룹과 오르카 프로젝트 협력

[기업별 이슈]

- 한화 방산 3사 대규모 채용 개시. R&D 직군 절반 이상

[기타]

- 한국-노르웨이 안보국방대화 신설 합의. 방산 협력 확대
- 군, 서울 등 20여곳에 대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추진
-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안보우산 약해지며, 국내 방산 기회
- 북한 드론 맞서 한국도 폴란드산 드론 수백대 연내 도입

[기타]

- 폴란드 2025년 국방비 65조원으로 전년비 대폭 증강
- 미국 우크라 지원 예산 이월 논의. 미 방산 공급 제약 때문
- 젤렌스키, 가을 대반격 준비. 내각 대통령실 대폭 개편
- 미 해군, F-35 엔진 등 4,050억 달러 발주. RTX 수주
- 영국, 이스라엘 일부 무기 수출 중단 결정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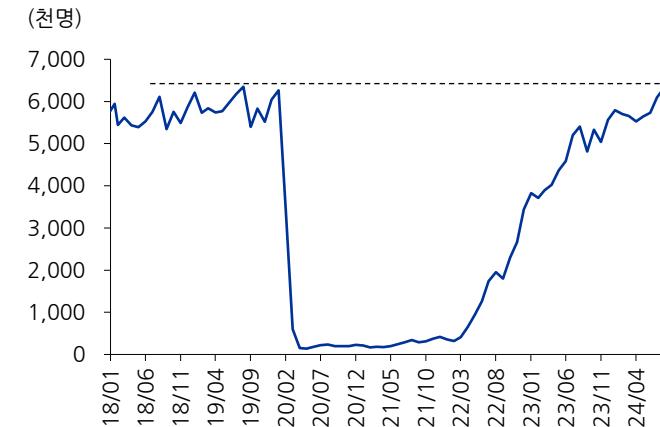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탠디 시리즈(3)

[8월 항공 데이터 발표,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과거 최고치 99% 도달]

■ 2024년 8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633만명을 기록. 이는 종전 최고치인 635만명(2019년 8월)의 99.6% 수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여객 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음. 앞으로는 2019년을 넘어 최고치 간신히 남음.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노선 여객도 2020년 1월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점 긍정적. 9월에도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10월에도 휴일이 3일이나 있어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최근 환율 및 유가 하락도 항공사들의 3분기 성수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작용 중

Key Chart: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추이



자료: Okinawa Airport

Weekly Keyword

"8월 항공 데이터 발표"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종전 최고 수준에 도달. 이제는 2019년을 넘어서 여객 신기록 간신히 남음. 중국 노선 마저 회복했고, 매크로도 우호적인 환경에서 3분기 항공사 실적 흐름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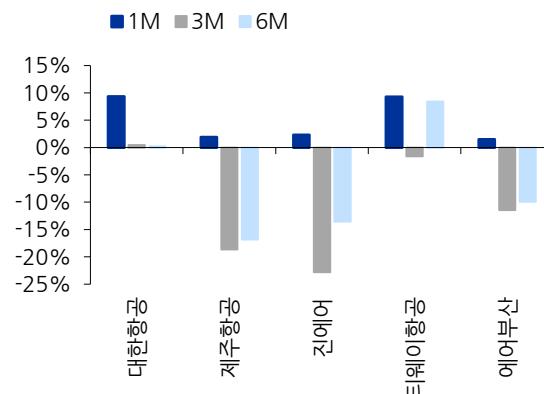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9/02~09/08)

[여객]

- 한일 양국 사전 입국심사 도입 검토 추진
- 올해 7월까지 일본 정기편 취항지 24곳 회복(19년 27곳)
- 에어프레미아, 인천-뉴욕 주5회로 증편
- 국제선 지연율 23%. 지난해는 17%. 6%pt 상승
- 대한항공 수요 많은 중화권 및 일본 노선 집중 확대
- FSC와 LCC 모두 일본 노선 증편 및 운항 재개 추진
- 제주항공 10월 27일부터 인천-발리 노선 취항
- 에어부산 10월부터 김해-발리 노선 취항
- 7~8월 국제선 승객 수 1,569만명. 전년비 20% 증가
- 대한항공, 차세대 항공기 A321네오 12호기 도입

[기타]

- 항공사 인력 수 1,500명 이상 증가. 티웨이 35% 증가
- 상반기 항공업계 직원 급여 코로나 이전 대비 37% 증가
- 에어부산 분리매각 관련 EU는 재심사에 대해 큰 반응 없음
- 제주 2공항 국가사업 확정. 기본계획 고시

[Global]

- 중국 베이징 공항 등 3곳 국제 허브로 육성 추진
- 홍콩,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 탑승 막는 정책 시행
- 스웨덴 내년 7월 항공세 폐지. 기후정책 여행 논란
- 에미레이트, 작년 31개 항공사와 코드쉐어 체결
- 케세이퍼시픽 A350 엔진부품 결함 발견
- 제트블루 예상 매출 상향 조정으로 주가 강세
- 아침에비에이션, 시험 비행 400회 돌파. 4개월 앞당겨
- 중국 항공사 3사 상반기 적자 축소. 국내선 기여